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광주·전남 행정 빛났다

광주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최초 인증·동구 생활쓰레기 해결 최고 성과 전남 신안 공영장레 제도 ‘국내 최초’...장레 복지 사각지대 해소 확인

광주와 전남이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최초·최고’ 무대에서 동시에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2008년 출발한 탄소은행(현 탄소중립포인트제)으로 ‘국내 최초’ 인증을 받았고, 전남 신안군은 공영장레 제도의 출발지로 ‘국내 최초’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 동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활 쓰레기 해결로 ‘국내 최고’에 선정됐다.

17년간 지속된 광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을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분야별 ‘최고’ 운영 기관을 선정해 성과 확산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 추진 중이다. 올해는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 등 모두 8건이 선정됐다.

광주시의 탄소은행은 금융과 생활에너지 절감을 연결한 보상형 모델로 출발했다.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어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와 가스, 수도 사용량을 직전 대비 얼마나 줄였는지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구조다.

2012년에는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 운영되며 전국 확산의 기반이 됐고, 광주 가입률은 58%로 전국 평균 12%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가게 정구서의 실제 감축분을 기반으로 한 성과 보상 구조가 참여 동기를 높였고, 데이터로 투명하게 검증되는 점이 신뢰를 뒷받침했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2만3277가구가 참여해 이산화탄소 5만7367kg을 줄였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는 소나무 2만520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고, 2000cc급 승용차 27만대가 동시에 1km 주행을 줄인 것에 해당한다.

신안군의 공영장레는 2007년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장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작했다. 제도 도입 이후 공영장레는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돼 올해 4월 기준 15개 광역과 217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단계로 올라섰다.

장레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공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공식 확인된 셈이다.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혁신도 주목받았다. 광주시 동구는 골목 쓰레기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투기 취약 지역을 지도화하고, 종량제 봉투만 인식해 열리는 인공지능 배출함을 도입했다.

청소차 도착 정보를 알려 정식 배출을 유도하는 서비스까지 결합해 무단투기 지역을 18곳에서 4곳으로 줄였고, 연간 처리비용 약 4억 원 절감 효과를 냈다는 점이 ‘국내 최고’ 선정의 배경이 됐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분야별 최고 사례도 함께 발표됐다. 공영장레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안양시가, 이주자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 분야에서는 충북 제천시가 최고로 선정됐다. 광주 동구의 쓰레기 해결 사례는 일상 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증을 통해 지역에서 검증된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도 이번 인증을 계기로 참여 저변을 넓히고 정산과 환급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가정만이 아니라 상가와 소규모 사업장, 공동주택 공용부 등으로 참여 대상을 넓히고, 계량 데이터 연동을 강화해 감축 실적의 신속한 반영과 보상 주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광주시가 최초로 시행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민 에너지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제도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의과대학 설립 위한 통합대학 교명 공모 서둘러야”

전남도의회 촉구

전남도의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남 국립의대 추진에 발맞춰 통합대학(목포대+순천대) 교명 공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는 하나 된 마음으로 즉각 통합대학 공모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에 합의한 것은 의과대학 설립을 향한 결정적인 진전이었다”

며 “그러나 선언과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통합대학 명칭의 의과대학 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통합대학 교명 확정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목포대와 순천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교명 공모 절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통합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역사적 과업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180만 도민의 염원인 국립대학 설립이 국정과제 채택과 대학 통합 합의까지 이뤄진 지금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세계양궁연맹 총회 개막 세계양궁연맹 총회가 전 세계 105개국 양궁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광주시 제공)

시민 결의로...매주 토요일 ‘찾아가는 문화공연’ 진행

11월까지 총 31회 공연...오페라·연극·거리공연 등

시민들이 주말 저녁 도심에서 문화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문화공연-당신 결의’ 하반기 프로그램을 6일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9월부터 매달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는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상마당·남구 푸른길공원·광산구 운남근린공원에서,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는 서구 상무시민공원·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총 31회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 무대는 광주시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과 함께 도시 곳곳에 문화 활력을 채우기 위해 준비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무대를 넓히고, 시민의 문화 체험도를 끌어올리는 ‘생활 속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개막 주간인 6일에는 세 구역에서 동시에 막을 올린다. ACC 상상마당에서는 금관 5중주 ‘금플레이’가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을 엮은 ‘일몰 힐링 콘서트’로 시민을 만난다.

푸른길공원 무대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악가요와 남도 민요를 들려주는 ‘국악콘서트’, 운남근린공원에서는 광주시립극단이 광주학생운동 당시 광주여고 독서회 ‘소녀회’를 모티브로 한 연극 ‘소녀들’을 선보인다.

오페라·연극·거리공연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동네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주말 문화장터’가 세 달간 펼쳐진다.

광주시는 상반기(4-6월)에도 같은 이름의 공연을 운영해 지역 예술인 257명이 참여했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응답자 257명)에서 97.5%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권 공연 거점을 다섯 곳으로 나눠 정례화하고, 시간대·공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으로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신신하 광주시 문화정책관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 일상에 작지만 따뜻한 여유를 더하겠다”며 “하반기에는 더욱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시민과 함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나선다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시민위원회’ 모집

광주시가 시민과 함께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추진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시민위원회’를 공개 모집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1일 출범한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위원회’에 이어 민·관이 힘을 모으는 두 번째 행보로 유치 공감대를 전국으로 넓히기 위

합이다.

시민위원회는 일상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치 필요성을 알리고, 온라인·오프라인 지지 서명에 참여·확산하며, 대외 홍보를 더 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주시는 범시민 온라인 서명을 함께 추진해 유치 염원을 결집하고 참여자 간 공유를 통해 지지 기반을 촘촘히 넓힌다는 구상이다.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산

업-경제-광주-산업-국가AI컴퓨팅센터’로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민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홍보물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참여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최대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일상 네트워크로 전파할 수 있도록 시민 위원단을 구성했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결정적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